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

이 지 원[†]

도로교통공단 상담심리사

본 연구는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 소재의 도로교통공단에 내방한 음주운전자 79명의 TCI 기질 및 성격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된 자료를 군집 분석하여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자는 기질적으로 자극 추구 점수가 높고, 성격적으로 연대감 점수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음주운전자의 군집분석 결과 '신경증적인 기질에 미성숙한 성격', '위험회피가 낮은 기질에 논리적인 성격', '관심을 원하는 기질에 자기 초월이 높은 성격'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셋째,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라 TCI 상위척도 중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 T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질 및 성격 특성별 심리상담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음주운전자, 기질, 성격, TCI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지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상담심리사, (631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231,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Tel: 064-710-9147, E-mail: jwlee@koroad.or.kr



Copyright ©2023, The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측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8,461건, 2012년 29,093건, 2013년 26,589건, 2014년 24,043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5년 24,399건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중 제법 비율은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이고, 음주운전 사고 제법 비율은 2018년 4.2%, 2019년 4.3%, 2020년 4.5%, 2021년 4.7%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추세이나 제법 및 사고 제법 비율은 증가추세이다(공공데이터포털, 2023;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 각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일한 기질이라 하더라도 성격 차원의 개발에 따라 개인의 적응과 성숙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질 반응에 대한 수용과 자각에서 출발하여 건강한 성격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자의 기질과 성격에 대한 연구는 지속 가능한 음주운전의 근절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loninger에 의해 고안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는 기존의 인성검사와는 달리 기질, 성격을 구분해 측정하는 장점이

있다. 기질은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가진 인성 발달의 원재료이다. 성격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를 포함하는 자기개념의 개인차를 말하며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고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TCI로 측정되는 4가지 기질은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S)이고, 4가지 기질 차원은 기분 상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뢰롭고 안정적인 속성을 지녔고 유전적으로 각자 동질적이며 서로 독립적이다. 3가지 성격은 자율성(Self-Directedness, SD), 연대감(Cooperativeness, C), 자기 초월(Self-Transcendence, ST)로 성격 차원들은 개인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의 차이를 반영한다. 자기개념은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변화시켜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준다. 세 가지 성격 차원들은 자신과 대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개인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포함한다. 건강한 성격 발달은 기질 반응에 대한 수용과 자각에서 출발하는데 기질의 자동적 반응은 우리의 주의와 지각을 특정 자극에 제한시키므로 우리의 기질 반응을 자각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주의를 기질 반응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동적 반응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기질의 수용은 성격 발달을 촉진하고 이렇게 발달된 성격은 기질 반응을 조절한다(민병배 등, 2021).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문제음주와 기질 및 성격,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고 있다. 우선 문제음주와 기질 및 성격에 관련된 연구로, 알코올 사용장애 증후군 대상 연구에서는 이들이 자극 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반면 자율성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김진현, 이덕기, 정봉주, 박영민, 김성곤, 2012; 김진훈, 김길숙, 오동렬, 김종우, 2002; 이정식, 김홍관, 2002). 반면 이다슬(2021)의 연구에서는 기질 차원에서 대학생 비폭음 음주 집단과 비음주 집단 간 자극 추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비폭음 음주 집단에서 위험회피가 비음주 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차원에서는 비폭음 음주 집단의 자율성이 비음주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문제음주와 기질 및 성격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성곤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 증후군은 수줍음을 잘 타며 걱정이 많고 염세적이며 쉽게 피로해지는 기질적 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외향성이 문제음주를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배성희, 양난미, 2015; 서경현, 조은희, 2010; 탁진국, 2000)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Avila Escribano et al.(2016)은 연구를 통해 기질 및 성격 특성 중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연대감, 자기 초월 점수가 더 높은 알코올 사용장애 증후군이 더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자극 추구, 위험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나쁜 예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보다 공격 성향과 적대 성향이 강하며, 적개심이나 분노가 높고 충동성이나 우울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채규만, 류명은, 2002; 최상진, 손영미, 김정인, 박정열,

2001). 한 연구에서는 운전 공격성, 충동성, 감각 추구성, 새로운 경험 추구성이 높은 운전자일수록 음주운전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Turrisi, Jaccard & McDonnell, 1997). 감각 추구 성향과 음주운전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20대 운전자 중에서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운전자일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석, 이병일, 2002; Arnett, 1998; Zuckerman, M., 1994; Furnham, A., & Saipé, J., 1993).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질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 선행연구(한덕현 등, 2006)가 있으나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영역인 성격적 특성에 대한 자료가 배제되어 있으므로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을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다루고 있고 MMPI가 음주운전자들에게 사용되는 임상적 도구이지만 기질과 성격을 나누어 성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유전적인 4개의 기질적인 부분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생기는 3개의 성격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등 성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다차원적 모델의 측정도구인 TCI를 활용하여 음주운전자들의 기질 및 성격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TCI 기질 및 성격 척도의 군집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여 음주운전자들의 성격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TCI가 음주운전자들의 군집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정보는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치료계획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며 아울러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현장에서 TCI 성격 검사

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행정처분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생들로 선정하였다. 참가자 표본은 2023년 3월 16일에서 3월 30일에 교육생 9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은 남자가 68명, 여자는 11명이었다.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무기명 동의를 받아 설문조사, TCI-RS 검사를 실시하였고 완료 후 비타민 드링크를 제공하였다. 문항 1개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9명이었는데 연구대상 79명과 결측치 19명 간 TCI 7개 척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최종 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상태, 종교, 차량주 용도, 운전 경력, 가계 소득, 음주운전 단속 적발 횟수, 교통법규 위반 적발횟수, 주량, 음주 빈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기질 및 성격 유형 검사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음주운전자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독일판 기질 및 성격검사(TCI-R)

의 단축형인 TCI-RS(Goth, Cloninger, & Schmeck, 2003)를 민병대 등(2021)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TCI-RS) 성인용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질 및 성격 차원의 7개 상위척도 하에 29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4가지 기질 차원과 3가지 성격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척도를 통해 측정되는 4가지 기질 차원은 자극 추구(NS: 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 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D: Reward Dependence), 인내력(PS: Persistence)이고, 3가지 성격 차원은 자율성(SD: Self-directedness), 연대감(CT: Cooperative), 자기 초월(ST: Self-Transcendence)이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일반성인 집단의 경우 .77~.88 수준으로 나타났으며(민병대 등, 2021),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차원별 문항을 공개하지 않는 ㈜마음사랑의 저작권보호 정책상 산출할 수 없었다.

자료분석

음주운전자들을 유사한 성격 특징을 가진 군집으로 구별하기 위해 4개의 기질, 3개의 성격 척도를 군집 분석에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에서, 1차적으로 유사성 측정치로 자승화된 유클리드식 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를 사용하였고 군집화 방식으로는 ward의 방법(ward's linkage method)을 사용하여 덴드로그램 확인 후 군집을 3개로 나누어 2차적으로 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각 군집들이 TCI 프로파일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군집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

(scheffé)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라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8.0 for Windows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제주지역 연구대상 음주운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전체의 86.1%인 68명이며, 여자는 13.9%인 11명이었다. 연령은 50대가 31.6%(25명), 학력은 대학교 졸업 및 중퇴(재학)가 53.2%(42명), 직업은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19.0%(15명), 결혼상태는 기혼이 40.5%(32명), 종교는 무교가 63.3%(50명), 차량주 용도는 비생계형 운전이 57.0%(45명), 운전경력은 25년 이상이 32.9%(26명), 지난 1년 간 한 달 평균 가계소득은 200~300만원과 300~400만원이 22.8%(18명),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1회가 73.4%(58명), 면허 취득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1회가 53.2%(42명), 면허 취득 후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 적발 횟수는 0회로 30.4%(24명), 주량은 1~2병이 45.6%(36명), 음주빈도는 주 3회가 29.1%(23명),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취소(0.08%~0.2 미만)가 60.8%(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중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 받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부여받으므로 구분하여 명시하였다.

음주운전자의 TCI 군집분석 유형별 TCI 양상

적절한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유사성 측정치로 자승화된 유클리드식 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를 사용하였고 군집화 방식으로는 ward의 방법(ward's linkage method)을 사용하여 덴드로그램을 확인하였다. 군집을 3개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차적으로 3개의 군집을 설정하고 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였다. 군집수를 3개로 했을 때 군집 1=40명(50.6%), 군집 2=18명(22.8%), 군집 3=21명(26.6%)이었다. 추출된 각 군집들의 TCI 프로파일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 군집에 대한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Wilk's Lamda를 적용하였을 때 3개 군집은 $F(2, 76)=13.469$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판 TCI의 유형 분류를 위해 사용된 3분 분할점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를 하였고 표 2에 제시하였다. 3개 군집의 TCI 기질 및 성격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3에 제시하였고 군집별 TCI 기질 및 성격척도의 평균 프로파일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군집 1($n=40$)은 기질 차원에서 평균값이 자극 추구($T=57.03$)와 위험회피($T=56.48$)가 높은 수준(High, H), 사회적 민감성($T=46.00$), 인내력($T=44.43$)이 중간 수준(Medium, M)인 H-H-M 유형(신경증적인)이다. 성격 차원의 자율성($T=39.48$), 연대감($T=39.53$)은 낮은 수준(Low, L), 자기 초월($T=45.65$)은 중간 수준(Medium)인 L-L-M 유형(미성숙한)이다. 군집 1은 기질적으로 자극적이고 모험적인 일에 더 흥미를 보이긴 하지만

표 1. 연구대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68	86.1	
	여	11	13.9	
연령	20대	7	8.9	44.46 (11.02)
	30대	19	24.1	
	40대	22	27.8	
	50대	25	31.6	
	60대	6	7.6	
학력	초등학교 졸업 및 중퇴	1	1.3	
	중학교 졸업 및 중퇴	5	6.3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26	32.9	
	대학교 졸업 및 중퇴(재학)	42	53.2	
	대학원 이상	5	6.3	
직업	무직	4	5.1	
	주부	4	5.1	
	자영업	15	19.0	
	회사원	14	17.7	
	공무원	1	1.3	
	전문직	9	11.4	
	노동	9	11.4	
	농수산업종사자	4	5.1	
	서비스업	15	19.0	
	은퇴·연금생활자	1	1.3	
	기타	3	3.8	
결혼상태	미혼	27	34.2	
	기혼	32	40.5	
	이혼상태	13	16.5	
	별거상태	2	2.5	
	사별상태	3	3.8	
	재혼	2	2.5	

표 1. 연구대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계속 1)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종교	종교 없음	50	63.3	
	불교	22	27.8	
	기독교	4	5.1	
	천주교	1	1.3	
	기타	2	2.5	
차량 주 용도	생계형 운전	34	43.0	
	비생계형 운전	45	57.0	
운전경력	1년 미만	1	1.3	
	1년~5년 미만	7	8.9	
	5년~10년 미만	9	11.4	
	10년~15년 미만	17	21.5	
	15년~20년 미만	7	8.9	
	20년~25년 미만	12	15.2	
	25년 이상	26	32.9	
지난 1년 간 한 달 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6	7.6	
	100~200만원	7	8.9	
	200~300만원	18	22.8	
	300~400만원	18	22.8	
	400~500만원	12	15.2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	500만원 이상	18	22.8	
	0회	13	16.5	
	1회	58	73.4	
	2회	6	7.6	
면허 취득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적발 횟수	3회 이상	2	2.5	
	0회	6	7.6	
	1회	42	53.2	
	2회	20	25.3	
	3회 이상	11	13.9	

표 1. 연구대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계속 2)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면허 취득 후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 적발 횟수	0회	24	30.4	
	1회	20	25.3	
	2회	12	15.2	
	3회 이상	23	29.1	
주량	3잔 이하	6	7.6	
	1병 이하	6	7.6	
	1~2병	36	45.6	
	2~3병	22	27.8	
	3~4병	4	5.1	
	4병 이상	5	6.3	
음주빈도	월 1회 이하	4	5.1	
	월 2회	9	11.4	
	주 1회	8	10.1	
	주 2회	22	27.8	
	주 3회	23	29.1	
	주 4회 이상	13	16.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정지(0.03~0.08% 미만)	19	24.1	
	취소(0.08~0.2% 미만)	48	60.8	
	취소(0.2% 이상)	9	11.4	
	측정거부	3	3.8	

표 2. 한국판 TCI의 유형 분류를 위해 사용된 3분 분할점

	구분	T점수 범위	백분위 점수 범위	비율
H	높음(High)	$55 \leq T$	$70 \leq P$	30%
M	중간(Medium)	$45 < T < 55$	$30 < P < 70$	40%
L	낮음(Low)	$T \leq 45$	$P \leq 30$	30%

선부른 판단을 하거나 무모하게 일을 밀어 부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순간적으로 새로운 일에 끌리다가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다.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까다롭게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

표 3. TCI 상위척도 T점수 군집별 평균 및 표준편차 ANOVA 결과

	군집			전체평균 (표준편차) N=79	F	df	Scheffé
	1(n=40) M(SD)	2(n=18) M(SD)	3(n=21) M(SD)				
NS	57.03(10.85)	48.33(7.56)	63.95(12.88)	56.89(12.01)	10.13***	2, 76	2<1, 3
HA	56.48(7.44)	41.39(12.03)	47.52(8.81)	50.66(10.91)	19.12***	2, 76	2, 3<1
RD	46.00(8.88)	49.78(13.48)	57.86(9.50)	50.01(11.27)	9.23***	2, 76	1, 2<3
P	44.43(8.18)	48.61(9.51)	62.00(8.96)	50.05(11.36)	28.40***	2, 76	1, 2<3
SD	39.48(8.67)	56.78(8.17)	50.81(11.70)	46.43(11.91)	23.81***	2, 76	1<2, 3
C	39.53(8.56)	52.89(11.12)	54.00(10.64)	46.42(11.92)	20.31***	2, 76	1<2, 3
ST	45.65(8.59)	37.94(5.80)	57.19(7.55)	46.96(10.33)	30.88***	2, 76	1<2<3

TCI 척도들에 대한 MANOVA 결과 Wilk's $\lambda = .182, F = 13.469,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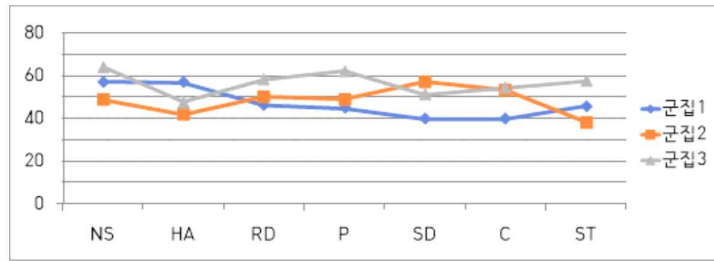


그림 1. TCI 기질 및 성격척도 T점수별 군집 프로파일

관계에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쉽게 화가 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우유부단하며 걱정이나 갈등이 많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들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수시로 마음이 변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이나 짜증이 나지만 이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성격적으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모습 또한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자기 확신이나 목표가 불분명하고 의욕이나 활기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어려울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위축되어 지내는 편이다(민병배 등, 2021).

군집 2(n=18)는 기질 차원에서 평균값이 자극 추구(T=48.33), 사회적 민감성(T=49.78), 인내력(T=48.61)이 중간 수준(M)이며 위험회피(T=41.39)가 낮은 수준(L)인 M-L-M(낮은 위

협회피) 유형이다. 성격 차원에서 자율성(T=56.78)이 높은 수준(H)이고 연대감(T=52.89)이 중간 수준(M)이며 자기 초월(T=37.94)이 낮은 수준(L)인 H-M-L(논리적인) 유형이다. 군집 2는 기질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별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낙관적인 사람이다. 어려움이나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망설임이나 머뭇거리기 없이 대담하게 추진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낌이 없다. 피로감을 잘 느끼지 않으며 스트레스도 잘 감당한다. 겁이 없고 조심성이 부족하며 낙관적인 태도가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세심한 계획이나 검토 없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무신경하고 겁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 때로는 자기주장이나 대담성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성격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 책임감 있고 신뢰로운 인상을 준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관심을 유지한다. 논리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조절이나 절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항상 통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매사를 자신이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불확실한 결과까지도 통제하기 위해 애쓰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나 죽음 등에 직면할 때는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민병배 등, 2021).

군집 3(n=21)은 기질 차원에서 평균값이 자극 추구(T=63.95), 사회적 민감성(T=57.86), 인

내력(T=62.00)이 높은 수준(H)이고 위험회피는 중간 수준(M)인 H-M-H(관심을 원하는) 유형이다. 성격 차원에서는 자율성(T=50.81), 연대감(T=54.00)이 중간 수준(M)이며 자기 초월(T=57.19)은 높은 수준(H)인 M-M-H(높은 자기 초월) 유형이다. 군집 3은 기질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관심과 흥미의 범위가 넓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순발력 있고 자유분방하다.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며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많은 사람들과 쉽게 빨리 친해진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즐기며, 자신의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변덕스럽고 예민하며 자기중심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지나칠 때는 무례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감수성이 풍부한 반면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라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 외향적이고 활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거절이나 비난에 취약하다. 성격적으로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다.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서의 전쟁, 기아, 불의 등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연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환경 문제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으로 굳이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이나 고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초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물질적인 소유에 덜 집착하며 현실적인 이득에 대해 자유롭고 초연한

태도를 보여 때로는 현실감이 부족한 이상주의자로 인식되기도 한다(민병배 등, 2021).

표 3은 TCI 척도의 군집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기질 및 성격 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 7개의 척도에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른 TCI 상위척도 T점수의 양상

표 4는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라 TCI 상위척도 T점수의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자율성의 백분위 점수가 30미만이고 연대감이 30미만이거나 자율성과 연대감의 합이 30미만인 경우 성격이 미발달되어 기질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구분하여 ‘성격 미발달’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기질을 조절하기에 성격이 발달된 상태로 보아 ‘성격 발달’ 집단으로 구성하였다(민병배 등, 2021).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라 TCI 상

위척도 중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 T점수에 차이가 있었다.

위험회피에 있어 성격 미발달의 경우 54.78점, 성격 발달의 경우 46.44점으로 성격 미발달인 경우 성격 발달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사회적 민감성에 있어 성격 미발달의 경우 46.30점, 성격 발달의 경우 53.82점으로 성격 미발달의 경우 성격 발달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인내력에 있어 성격 미발달의 경우 45.58점, 성격 발달의 경우 54.64점으로 성격 미발달인 경우 성격 발달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율성에 있어 성격 미발달의 경우 38.65점, 성격 발달의 경우 54.41점으로 성격 미발달인 경우 성격 발달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연대감에 있어 성격 미발달의 경우 38.88점, 성격 발달의 경우 54.15점으로 성격 미발달인 경우 성격 발달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4.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른 TCI 상위척도 T점수의 평균 차이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		t(p)
	성격 미발달(n=40) M(SD)	성격 발달(n=39) M(SD)	
NS	58.60(12.41)	55.13(11.47)	1.290(.201)
HA	54.78(11.91)	46.44(7.91)	3.657(.000)***
RD	46.30(9.60)	53.82(11.70)	-3.128(.002)**
P	45.58(11.00)	54.64(9.89)	-3.849(.000)***
SD	38.65(8.96)	54.41(8.94)	-7.826(.000)***
C	38.88(8.60)	54.15(9.72)	-7.404(.000)***
ST	46.03(9.68)	47.92(10.99)	-0.815(.418)

*** p<.001, ** p<.01.

논 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방법은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 각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일한 기질이라 하더라도 성격 차원의 개발에 따라 개인의 적응과 성숙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질 반응에 대한 수용과 자각에서 출발하여 건강한 성격 발달로 이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자의 기질과 성격에 대한 연구는 지속 가능한 음주운전의 근절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음주운전자들이 기질을 수용하고 성격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담 및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주운전 적발되어 음주교육 명령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TCI 기질 및 성격척도를 군집 분석하여 3개 집단으로 분류한 집단(신경증적인 기질에 미성숙한 성격, 위험회피가 낮은 기질에 논리적인 성격, 관심을 원하는 기질에 자기 초월이 높은 성격)의 유형별 TCI 양상을 살펴보고, 성격의 기질 조절 양상에 따른 TCI 상위척도 T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자 전체($N=79$) TCI 프로파일에서 기질차원의 자극 추구 점수는 56.89로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고 탐색적이고 호기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돈이나 에너지를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 절제도 어려운 편이다. 이들은 또한 욕구가 좌절될 때 쉽게 화를 내거나 의욕을 상실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일을 할 때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민병배 등, 2021). 이는 음주운전자가 감각추구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박선영, 2006; Donovan, 1982, 1983; Stacy, 1991, 1993, 1994; Turrissi, Jaccard, & Macdonnel, 199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성격차원의 연대감 점수는 46.42로 평균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에 배려가 부족한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적대적이며 복수심이 많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민병배 등, 2021). 이는 충동성이 높은 운전자의 경우 희생자나 희생자의 가족이 느끼는 피해와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낮다는 선행 연구(Eysenck, 1977)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음주운전자의 반사회적 성격특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박선영, 1998, 2002; 채규만, 류명은, 2002; 최문희, 2004; 신용균, 류준범, 2010; 윤유정, 2019) 결과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구성할 때 기질 및 성격 발달에 대한 안내로 시작하여 자극 추구가 높은 기질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건강한 자극 추구 방법을 안내하며 실생활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교화 및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점검하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연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제공한 뒤 타인의 욕구에 집중하여 공감반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둘째로 음주운전자의 군집분석 결과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먼저 군집 1($n=40$)은 본 연구대상의 50.6%에 해당되는

‘**신경증적인 기질에 미성숙한 성격**’이다. 군집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불안정한 기질을 수용하고 자각할 기회와 노력이 충분치 않아 기질이 미성숙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타고난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면 술을 마실 때 한 잔만 마시려고 결심하지만 만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내담자를 심리상담 할 때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표적 행동을 설정하고 충동적인 행동 전 감정이나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때 내담자에게 대안적인 행동을 설정하는 것은 통제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 군집 2($n=18$)는 본 연구 대상의 22.8%에 해당되는 ‘**위험회피가 낮은 기질에 논리적인 성격**’이다. 군집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겁이 없고 조심성이 부족한 기질을 타고나 이성 과 감정을 균형 있게 통합하여 기질을 통제하기보다는 이성에 치우친 방법으로 다루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내담자는 다소 무모한 경향이 있으므로 내담자의 낙천적인 부분을 지지하며 라포형성을 하되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법규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리가 중요한 내담의 성격적 특성에 맞게 법규를 준수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법규를 어겼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법규를 지키는 것이 내담자에게 실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Rollnick 등(1995)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법보다는 동기강화상담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담자 내적으로 동기 변화가 일어나고, 양가감정을 표현하며 해결하는 것이 내담자의 과제라는 것을 내

담자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직접적인 설득, 공격적인 직면, 논쟁은 피하면서 상담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군집 3($n=21$)은 본 연구 대상의 26.6%에 해당되는 ‘**관심을 원하는 기질에 자기 초월이 높은 성격**’이다. 군집 3은 외향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이 추상적인 가치관에 몰입하는 데 발현될 확률이 높아 현실적인 이득이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하여 원대한 목표를 좇으려다 사소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담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등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현실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담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변화 동기를 반영하는 변화 대화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은 동기강화상담의 최대 강점이므로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이규미, 2010). 더불어 가족, 친구 등과 같이 자신과 현재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점검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모든 심리상담 과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알코올의 역할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며 개인에 따라 상담 회기 수는 상이할 것이다.

셋째로 음주운전자들은 성격의 기질 조절 기능 양상에 따라 성격이 미발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위험회피, 낮은 사회적 민감성, 낮은 인내력, 낮은 자율성, 낮은 연대감을 확인하였다. 미성숙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성격적 성숙을 위하여 조력한다.

자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진 및 지지하고, 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감능력향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알코올 의존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코올 금단현상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병원에 입원하면 알코올에서 차단될 뿐만 아니라 금단현상에 도움이 되는 진정제를 투여 받는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알코올의 부정적 영향을 교육 받고, 스트레스 대처 훈련, 명상, 이완훈련, 자기주장훈련 등이 함께 시행된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자들이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가정불화로 인한 심리적 갈등, 대인 기술의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 직장 스트레스 해소 방법 부재 등 각기 다를 수 있다. 반복되는 심리적 고통을 풀기 위해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알코올 의존자로 하여금 반복적인 음주를 하게 만드는 심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 심리치료에서는 알코올 의존자들이 지니는 개인적 갈등과 고민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적 기술훈련, 스트레스 대처 훈련, 의사소통 훈련, 자기주장 훈련, 감정표현 훈련 등을 통해 심리적 갈등을 완화하는 기술을 습득시켜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특히 상당수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분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술로 분노를 해소하여(송미경, 2005)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정을 해소하고 표현하

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제주 소재 도로교통공단에 내방한 음주운전자 9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본의 크기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표본크기를 충분히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 다른 성격검사 척도들을 사용하여 TCI 군집 간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음주운전자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치료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TCI상에서의 음주운전자들의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로 학자들마다 기질과 성격 영역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TCI 상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넷째 동일한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원의 개발에 따라 개인의 적응과 성숙에 차이가 있으며, 긍정적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TCI 기질 및 성격 특성 외에 음주운전자와 관련성이 높은 변인을 조사하여 군집별 특성을 밝히지 못한 점이 제한점이므로 추후 관련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격의 중요성이 상담, 심리치료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병리적인 심리 장애의 유무를 떠나 개인의 성숙과 적응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공공데이터포털 (2023). 경찰청_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 <https://www.data.go.kr/data/15043113/fileData.do?recommendDataYn=Y>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 주요 교통사고 특성분석.
- <https://taas.koroad.or.kr/web/bdm/srs/selectStaticReportsDetail.do> 에서 검색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532-533.
- 김병석, 이병일 (2002). 감각 추구 성향 및 도덕적 요인과 음주 운전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59-80
- 김진현, 이덕기, 정봉주, 박영민, 김성곤 (2012). 입원한 알코올의존환자의 성격 기질 특성과 음주 특성, 그리고 금주 동기에 대한 연구. 중독정신의학, 16(1), 21-29.
- 김진훈, 김길숙, 오동렬, 김종우 (2002). 기질 및 성격특성과 알코올의존의 관련성. 중독정신의학, 6(2), 95-101.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21). 기질 및 성격검사 통합 매뉴얼. ㈜마음사랑.
- 박선영 (1998).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공단.
- 박선영 (2002).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공단.
- 박선영 (2006). 성격과 음주운전 관계에서 인지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음주운전자와 일반 운전자의 모형 비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성희, 양난미 (2015).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성격 5요인, 음주효과 기대, 예방행동전략: 음주동기의 군집비교.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6(2), 213-2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도로교통법. 해광.
- 서경현, 조은희 (2010). 5요인 성격 특성과 성인의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11(2), 51-62.
- 송미경 (2005). 알코올의존 환자를 위한 인지정서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 효과 입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67-381.
- 신용균, 류준범 (2010). 음주운전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62, 425-430.
- 윤유정 (2019). 음주운전 적발횟수 및 알코올에 따른 심리성격특성의 차이 검증: 음주운전자와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미 (2010). 상담장면에서의 변화동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245-264.
- 이다슬 (2021). 대학생 비폭음 음주 집단과 비음주 집단의 기질 및 성격 특성 비교.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2(6), 1113-1124.
- 이병욱, 이충헌, 이필구, 최문종, 남궁기 (2000). 한국어판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 검사 (AUDIT: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중독정신의학, 4(2), 83-92.
- 이정식, 김홍관 (2002). 한국판 TCI를 사용한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인격 특성 연구. 중독정신의학, 6(1), 39-48.
- 이현정 (2016). 알코올중독자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요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채규만, 류명은 (2002). 성격, 인지, 사회적 환경 및 음주행동과 음주운전간의 관계. 한

- 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63-789.
- 최문희, 조현섭 (2004). 음주운전 수감명령 교육 대상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455-470.
- 최상진, 손영미, 김정인, 박정열 (2001). 음주운전 결정요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19(6), 33-47.
- 탁진국 (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73-83.
- 한덕현, 조규현, 배수정, 배수진, 김형준, 김지현, 이지영, 김다정, 류인균 (2006). 음주운전자들의 기질적 특성.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지, 15(1), 37-44.
- Arnett, J.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3), 301-320.
- Avila Escribano, J. J., Barba, M. S., Pedrero, A. Á., VILLARREAL, A. L., PÉREZ, J. R., RODILLA, M. R., & GARCÍA, E. (2016). Predictive capacity of Cloning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R) in alcohol use disorder outcomes. *Addictions*, 28(3), 136-143.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12), 975-990.
- Cloninger, C. R. (1994). The genetic structure of personality and learning: A phylogenetic model. *Clinical Genetics*, 46(1), 124-137.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Oxford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2008). The psychobiological theory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Comment on farmer and goldberg (2008). *Psychological Assessment*, 20, 292-299.
- Cloninger, C. R., Cloninger K, M., Zwir I., & Keltikangas-Järvinen, L. (2019). The complex genetics and biology of human temperament: a review of traditional concepts in relation to new molecular findings. *Translational Psychiatry*, 9(1), 290.
- Donovan, D. M., & Marlatt, G. A. (1982). Personality subtypes among driving-while-intoxicated offenders: relationship to drinking behavior and driving ris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2), 241.
- Donovan, D. M., Marlatt, G. A., & Salzberg, P. M. (1983). Drinking behavior, personality factors and high-risk driving.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4(3), 395-428.
- Eysenck, S. B., & Eysenck, H. J. (1977). The place of impulsiveness in a dimensional system of personality description.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6(1), 57-68.
- Gillespie, N, A, Cloninger, C. R., Heath, A. C., & Martin, N. G. (2003). The genetic and environmental relationship between Cloninger's dimension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8), 1931- 1946.
- Furnham, A., & Saipe, J. (1993). Personality correlates of convicted driv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329-336.
- Rollnick, W. R. & Miller, S. (1995). What is motivational interviewing?.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3(4), 325-334.
- Stacy, A., Newcomb, P., & Bentler, P. M. (1991). Personality, problem drinking, and drunk driving: Mediating, moderating, and

- direct-effec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95-811.
- Stacy, A., Newcomb, P., & Bentler, P. M. (1993). Cognitive motivations and sensation seeking as long-term predictors of drinking proble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1), 1-24.
- Stacy, A. W., Bentler, P. M., & Flay, B. R. (1994). Attitudes and health behavior in diverse populations: Drunk driving, alcohol use, binge eating, marijuana use, and cigarette use. *Health Psychology*, 13(1), 73-85.
- Turrisi, R., Jaccard, J., & McDonnell, D. (1997).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s relevant to alcohol-impaired driving tendenc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5), 1367-1394.
- Zuckerman, M. (1994). Impulsive unsocialized sensation seeking: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a basic dimension of personality. In J. E. Bates & T. D. Wachs (Eds.), *Temperament: Individual differences at the interface of biology and behavior*(pp. 219-25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원고접수일 : 2023. 11. 26.

게재확정일 : 2023. 12. 29.

Characteristics of TCI Profiles in Drunk Drivers

Lee, Ji-Won[†]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Jeju Branch
Consultant Psycholog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drunk drivers. Data from 79 drunk drivers who visited the Road Traffic Corporation in Juju were analysed. For this, the measured data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y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foun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drunk drivers had a high novelty seeking score and a low cooperative score.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of drunk drivers, they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immature with neurotic temperament," "logical with low-risk temperament," and "self-transcendent with temperament that wants atten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harm avoidance, reward dependence, persistence, self-directedness, and cooperative T scores among the TCI upper scales according to the temperament control function of person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presented a psychological counseling approach direction by temperament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o eradicate drunk driving.

Key words : drunk driver, temperament, character, TCI

[†] Corresponding Author : Ji-Won Lee, Department of Traffic, Korea Road Traffic Authority, 231, Nohyeong-ro,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E-mail: jwlee@koroad.or.kr